

한국교육행정학회 소식지

THE NEWSLETTER

발행처 한국교육행정학회(<https://www.keas1967.com/>) / 발행인 김병주 / 편집인 고장완 / 편집팀 구성우, 권혁기, 박명현 / E-mail keas1967@daum.net
주소 (0415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 9층 902호(도화동, 마스터스타워빌딩)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사무국

학회의 활동사항 및 학술대회 개최, 학회관련 업무는 홈페이지(<https://www.keas1967.com/>)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론 |

2024년 제52대 교육행정학회 운영 방향

김 도 기 | 한국교원대학교

존경하는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 2024년 제52대 한국교육행정학회를 맡게 된 김도기입니다. 1967년 창립 이후 어느덧 60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한국교육행정학회는 명실상부한 최고의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행정학회의 학회장이라는 중차대한 소임을 제가 맡게 되어 심적으로 부담감이 크긴 하지만, 학회 여러분들께서 좋은 기회를 저에게 선물해 주신 것으로 알고 학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역대 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의 헌신으로 이룩한 교육행정학회의 다양한 학문적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에 관심 있는 학자들과 교육행정전문가들의 지혜와 노력을 총동원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을 규명하여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체계를 확립하고, 교육행정이론을 체계적으로 연구·개발·보급함과 동시에 교육행정 현장의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연구·해결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재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나아가 한국교육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창립되었습니다. 이러한 학회 창립 취지 및 목적에 기반하여,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는 60여 년에 가까운 역사 동안 각종 학술대회 운영(연차학술대회, 연합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 등), 학회간행물 발간(교육행정학연구, 교육행정학 전문서, 교육행정학회 소식지 등), 각종 분과위원회 세미나 및 특강 운영, 다양한 정책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학문적 성과들을 이룩해 왔습니다. 저 또한 제52대 학회장으로서 학회의 창립 취지 및 목적을 다시금 마음에 새기고,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학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학회가 발전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우선, 학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평소 우리 학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회 회원들 간의 상시적인 소통과 만남,

이론과 실천이 연계되는 학술의 장 마련, 현재의 교육행정학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미래 교육행정학의 모색, 학회 내 인적·물적 자원의 활발한 공유, 그리고 교육행정학의 국제적 교류 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바대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인적·물적 네트워크가 활성화된다면 회원들 간의 협력적 집단지성을 통해 우리 학회가 가지고 있는 역량보다 더 큰 시너지(Synergy)를 발현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의 학문 후세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교육행정학의 발전적 미래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 학회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학문 후세대가 지속적으로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회뿐만 아니라 학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할 이슈이기도 하기에, 학문 후세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아젠다(Agenda)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행정학의 발전적인 미래가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학문 후세대를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학회 회원 중심으로 학회가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는 학회 회원 여러분들 모두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회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와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감과 동시에, 학회 회원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학회 운영 경비를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저의 고민이 학회 회원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게 다가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제52대 교육행정학회회장으로서 제가 바라는 바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노적성해(露積成海)’라는 사자성이 있습니다. 이는 이슬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룬다는 뜻으로,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상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이 있을 때 실현 가능한 것들입니다. 이에, 한국교육행정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가 그리고 있는 꿈과 바람에 대하여 회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립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아래, 2024년 한 해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가 ‘작은 노력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루는 학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다가오는 2024년은 청룡의 해 갑진년이라고 합니다. 청룡의 기운을 받아 새해에도 여러분들 가정에 건강하고 행복한 일들로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제52대 학회장 김도기 올림 -



| 시론 |

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바란다

이 덕 난 | 국회의원보좌기

교육개혁을 화두로 내걸었던 2023년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2023년 1년간 수고해주신 제51대 임원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4년을 시작하시는 제52대 김도기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진께 축하 인사를 드립니다.

2023년은 희망차게 시작하였으나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은 한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서이초 사건 등 가슴 아픈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선생님들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3년 9월부터 ‘교권 보호 5법’을 개정하는 등 교육공동체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으며, 2024년에도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2024년은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2025년)’를 대비해야 하는 해입니다. 지구 전체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경제와 안보 위기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교육, 복지, 경제, 안보, 정치 등이 분야별로 내부에서만 연구하고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연계협력을 넘어서 실질적인 융복합으로 나아가야 하며, 연구와 실천이 병행되는 실용적인 학문공동체가 요구되는 시대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핵심적인 목표인 ‘미래인재양성’을 위해서도 교육-행정안전-과학기술-산업자원-고용노동-문화관광-농수산-기획재정 등 관계부처와 학계, 민간기업 등이 적극적으로 소통 및 협업해야 합니다. 2023년에 이어서 더 활발한 연구 및 소통이 기대됩니다.

교육행정학회 내의 소통과 협업은 더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학회들은 물론이고 좀 더 폭을 넓혀서 인접 분야 학회들과도 협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회 학술대회 등에 교육법학회나 (일반)행정학회, 정치학회, 경제학회 등 다른 학회 연구자들을 발표, 토론, 토크쇼 등의 형식으로 초대하여 교류하는 것도 협업을 시작하기에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육행정학자대회’ 또는 ‘전국교육학자대회’ 등을 개최하여 외연을 크게 확대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은 총선이 실시되는 해입니다. 그 결과는 향후 4년간 교육 분야의 입법과 정책 결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총선 이후에 독자적으로 또는 유관학회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의 입법 및 정책의 현안과 과제에 대한 방향을 선제적으로 도출 및 제시하기 위한 장을 마련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24년은 교육부-교육청-교육기관으로 이어지는 단일형 행·재정 전달체계에서 벗어나 교육부-교육청-일반지자체-교육·보육기관 등으로 이어지는 **복합형 행·재정 전달체계**가 적용되는 해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린이집 등 보육에 대한 중앙정부의 사무, 예산, 조직, 인력 등이 교육부로 이관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시·도-시·군·구(자치구)-어린이집으로 이어지는 행·재정 전달체계가 시행됩니다. 이처럼 종전의 교육행·재정에서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학회는 그러한 새로운 행·재정 전달체계에 대해 사전적·사후적 양 측면에서 대비하여야 합니다. (일반)행정학회와 경제학회, 사회복지학회 등은 이미 활발하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학회도 관심을 갖고 연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일반 지자체 및 지방의회**와의 연계·협력 및 관련 연구에도 관심을 더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학문후속세대 양성**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행정학 및 교육학 분야에서만 겪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학계 전반을 놓고 보면 교육 분야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그러나 그 파고는 교육행정학회를 포함한 학계 전반에 조만간 크게 물려올 것입니다. 학회 차원에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도 추진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제안들을 임기 1년의 차기 학회에서 다 실행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학회 내에서 그러한 논의를 하는 장을 마련해주시고, 앞으로의 긴 여정을 위해 시작하거나 이어지는 일을 놓아주기를 기대합니다. 차기 학회에서 이미 계획하고 있는 일들과 함께 2024년 청룡의 해를 열어가는 데에 필자의 제안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시론 |

차기 학회에 바란다

우 한 술 | 삼성글로벌리서치

2023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교육행정학을 연구하시고 가르치시는 선배들과 동료분들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우한술입니다. 유학 전에는 한국교육개발원 국제교육개발협력연구실 위촉직 연구원, 교육행정연수원 교육행정지도자과정 연수주임으로 일했었고, 현재는 기업 연구소의 수석연구원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 사회공헌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교육 여건이 부족한 중학생에게 대학생·임직원·전문가의 멘토링을 제공하는 ‘드림클래스1’ 같은 사업도 기획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학계에 계신 선배 동료분들과 달리 민간 부문에서 교육을 연구하고 있지만, 오늘은 이 지면을 빌려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경험했던 세 가지 특별한 기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물론, 미국과 한국의 사회적 맥락도 다르고 각 교육행정학회가 처한 상황 역시 많이 다릅니다. 그럼에도 다양성과 형평성에 대한 가치 존중, 학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대학원생, 온라인 학술 플랫폼 운영 등은 우리 한국교육행정학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미국교육행정학회 UCEA(University Council for Educational Administration)의 다양성과 형평성에 대한 헌신입니다. UCEA는 역사적으로 인종차별 철폐를 위해 사회적인 목소리를 내어왔을 뿐만 아니라, 학회에 참가하는 흑인, 히스패닉 등 유색인종 학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왔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존중과 배려가 비단 미국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제 대학원생을 포함한 학문 후속세대들에게도 확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종, 출신국가 등에 관계없이 모든 학회원들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equality)’을 넘어, 유색인종 학자들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형평(equity)’의 가치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잭슨 스콜라 네트워크(Jackson Scholars Network, ‘JSN’)²⁾가 있습니다. JSN은 UCEA 총회의 투표로 2003년 11월에 도입되었으며, 1997년부터 2003년까지 UCEA 학회장을 맡았던 Barbara L. Jackson 교수³⁾를 기념하며 명칭을 정하였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교육행정전공 유색인종 대학원생들에게 네트워킹, 멘토링,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회 참여를 위한 장학금도 각 대학의 교육행정전공 학과에서 2년간 총 260만원(\$2,000)을 지원합니다. 무엇보다 유색인종 대학원생들이 실제로 미국 대학의 교수로 임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단, JSN

1) <https://www.dreamclass.org/index.do>

2) <http://www.ucea.org/graduate-student-development-home/jackson-scholars-program/>

3) <http://www.ucea.org/graduate-student-development-home/jackson-scholars-program/barbara-loomis-jackson/>

은 개별 학생이 지원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UCEA 회원 자격을 갖춘 약 30여개 대학의 교육행정전공 대표 교수들이 재학생 1-2명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감사하게 저도 2019년에 JSN에 선발되어 2년간 UCEA 및 소속 학과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고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UCEA 연차학술대회의 공식행사에서 Jackson Scholar 임명식을 진행하는데, 멘토 교수로부터 Certificate를 직접 수여 받고, 다른 대학의 Jackson Scholar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국제학생이라는 꼬리표를 잠시 떼고 교육행정학회의 장학생으로서, 또 소속 대학의 대표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Jackson Scholar의 멘토로 봉사하는 교수들 중에 많은 분들이 Jackson Scholar 출신인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도움을 받았던 멘토가 교수 임용 후 다시 멘토가 되어 학문후속세대를 위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JSN 학생들은 연차학술대회와 월례회에 참석하고 본인 연구를 발표함으로써 의무를 다하였으며, 선배 및 동료들도 진정어린 관심과 애정으로 피드백들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UCEA의 학생위원회(Graduate Student Council, 'GSC')⁴⁾ 활동이 체계적이고 주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년 이상 UCEA 연차학술대회에 출석한 대학원생들이 GSC 지원자격을 갖추게 되고, 선발된 8명의 학생위원들은 2년간 활동하며 연 78만원(\$600) 정도를 재정적으로 보조받습니다. GSC는 대학원생들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는 주제와 방식으로 세미나, 워크숍, 포럼 등을 직접 기획하고 운영합니다. 일례로, GSC는 UCEA 연차학술대회를 지원 및 보조할 뿐만 아니라, 사전 행사인 대학원생 세션 'GSC(Graduate Student Summit)'를 독립적으로 준비하며 학회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UCEA 연차학술대회에서 발표할 내용과 동일하게 GSC에서도 한 차례 더 발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학위논문심사위원 교수님들 앞에서 발표하기 전, 대학원생들 동료들 앞에서 발표하며 피드백을 받는 것과 유사합니다. 연구를 지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는 대학원생일지라도, 동료로서 조언해줄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정말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주제와 내용의 발표라도 GSC에서의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에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노하우, 참고할만한 문헌 추천 등에 관한 대화가 오가며 실질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GSC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GSC 발표자들이 의무적으로 다른 대학원생들의 연구계획서를 '동료심사(peer review)'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신진학자 혹은 대학원생들이 굉장히 엄격하고 냉정하게 심사를 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연차학술대회에서 선배들에게 받는 피드백보다 더욱 거친 심사결과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러한 동료심사 경험을 통해 어떠한 기준으로 연구계획서를 쓰고 학술지를 작성해야 하는지 심사기준 대한 안목도 생기게 됩니다. 또한, 예비교사들이 교생실습을 거쳐야 비로소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듯, 동료심사 참여는 연구자로서 학계를 더욱 이해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GSC는 UCEA의 연차학술대회의 운영을 지원하는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2018년부터는 미국교육학회 AERA(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의 교육행정학 분과 중 하나인 LSI SIG(the AERA Leadership for School Improvement Special Interest Group)와 연계하여⁵⁾ 교수-대학원생 사이에 멘토링 프로그램도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GSC는 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과 같은 SNS에 학회 활동을 적극 홍보하며 대중과의 접점을 넓혀가는 것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4) <http://www.ucea.org/grad-student-focus/graduate-student-council/>

5) <https://www.aera.net/SIG101/Key-Initiatives>

셋째, 대학원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온라인 학술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학술지 논문이 일반인, 교사, 교육행정이 등에 공유되고 읽히기에는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학술적인 용어와 연구 방법론에 대한 이해가 요구될 것입니다. 그러나 대중들과 교육현장에서는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해 적시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은 목마름이 있고, 연구 결과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요에 '다리(bridge)'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 학술 플랫폼입니다(Czerniawski & Kidd, 2011; Rynes, Bartunek, & Daft, 2001). 2023년 12월 말을 기준으로 300편이 넘는 글이 작성되었으며, 3,340명의 구독자가 있고, 23만 4천회 정도의 누적 방문자 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JE(American Journal of Education)'는 Top 11 학술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으며(Goodyear et al., 2009) '학생 자문위원회(Student Advisory Board)'를 중심으로 2012년 온라인 학술 플랫폼 'AJE Forum'⁶⁾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AJE Forum은 본 학술지인 AJE에 게재된 우수 논문을 리뷰하여 보다 쉬운 언어로 소개하기도 하며, 저자와의 인터뷰를 진행해 학술 논문을 작성, 투고, 게재하기까지의 과정과 학술지에 담지 못했던 생각들도 공유합니다. 이로써 보다 폭넓은 독자들로 하여금 학술 논문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돕습니다.

여러 대학의 다양한 세부전공으로 구성된 대학원생들이 직접 글을 쓰고 심사하며 편집해보기도 합니다. 총기사고, 교원부족사태, 코로나19 및 대응 등 다양한 교육 현안에 대해 대학원생들이 학술논문, 통계, 신문기사 등을 활용하여 약 1,500자 정도의 글을 써보고, 동료심사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온라인에 게재하게 됩니다. 저 또한 2018년부터 2년간 AJE Forum의 멤버로 활동하며 2개의 글을 작성하고 10편 정도의 심사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학교교사들과 행정가들과 협업하여 피드백을 받고 글을 쓰기도 하며, 교육행정전공 외에 교육철학, 교육사회, 교육심리, 교육과정, 교육평가, 교육공학, 평생교육 등 다양한 교육 전공자들과 협의하는 경험 또한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학생 주도의 학술 활동이 학자로서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실증 논문도 존재합니다(Deonandan, & Winterbottom, 2012).

정리하자면, 소외받을 수 있는 대학생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대학원생 위원들이 학술대회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것, 그리고 학술 논문을 보다 넓은 독자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는 것이 제게는 유학시절 가장 인상 깊었던 점들입니다. 2024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운영에도 참고할 점이 있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6) <https://www.ajeforum.com/>

참고문헌

- Czerniawski, G., & Kidd, W. (Eds.). (2011). Student voice handbook: Bridging the academic/practitioner divide. Emerald Group Publishing.
- Deonandan, R., Patel, P., & Winterbottom, R. (2012). A student-run peer-reviewed journal: an educational tool for students in the health sciences. *Advances in Medical Education and Practice*, 1-5.
- Goodyear, R. K., Brewer, D. J., Gallagher, K. S., Tracey, T. J., Claiborn, C. D., Lichtenberg, J. W., & Wampold, B. E. (2009). The intellectual foundations of education: Core journals and their impacts on scholarship and practice. *Educational Researcher*, 38(9), 700-706.
- Rynes, S. L., Bartunek, J. M., & Daft, R. L. (2001). Across the great divide: Knowledge creation and transfer between practitioners and academic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44(2), 340-355.



| 시론 |

교육적 가치를 담은 ‘벽 허물기’를 위한 제언

한 송 이 | 세명대학교

‘혁신(革新)’은 대학 사회에서 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핵심 과업이다. 고등교육법 제28조에 따르면 대학은 인격을 도야하고, 국가와 인류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심오한 학술이론과 그 응용방법을 가르치고 연구하며, 국가와 인류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교육기관이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고 그 변화를 선도해 나가는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묵은 관습에서 벗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은 교육기관이 갖는 하나의 숙명일지도 모른다.

지난 2010년 학부교육선도대학육성사업(ACE사업)을 기점으로, 지난 10여 년 간 대학은 교육 혁신을 향해 달려왔다. 대학의 비전과 인재상에 부합하는 핵심역량을 정립하고, 이를 함양할 수 있는 역량기반 교육으로 교양과 전공 교육을 전환하였다. 수업 외에 학생들의 다양한 학습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교과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운영되었고,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 왔다. 이런 혁신 노력에 따라 최근에는 학생성공(student success)을 이야기하며, 개별 학습자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체제로의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학령인구의 감소는 여전히 대학 생존을 위협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 대학들은 신입생 충원의 어려움과 재학생의 중도탈락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학별 최대 1,000억 원이라는 파격적인 재정지원을 제시하며 글로벌대학30 사업을 통한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였다.

글로벌대학은 담대한 혁신으로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이다(교육부, 2023). 해당 사업은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지역·산업계 등과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대학·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갈 대학 30개교를 지정하여 집중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 결과 올해 첫 10개의 글로벌대학이 지정되었다. 이번에 지정된 대학들은 공통적으로 대학 내 학과, 전공 간의 벽을 허물고, 대학과 지역산업 및 연구기관의 벽을 허무는 등 다양한 ‘벽 허물기’ 계획을 제시하였다(배상훈 외, 2023). 이미 초·중등 교육 단계에서는 학교 안팎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연결하려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식의 상이탑으로서의 대학이 견고한 벽을 허무는 것은 대학 혁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개된 혁신기획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는 방안은 학과 간 벽 허물기이다. 많은 대학들이 무전공, 무학과제를 운영하거나 학과를 여러 클러스터로 통합하여 모듈형 교육을 운영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교육부가 일반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학과 간 벽을 허무는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기사가 제시됨에 따라, 앞으로 대학 사회에서 벽 허물기는 주요한 혁신 트렌드가 될 것으로 추론된다.

사실 이러한 학과 간, 대학 간 벽 허물기는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다. 약 1970년대에서부터 학부제와 학과제는 도입과 복귀의 논쟁을 지속해 왔다(강명구, 김지현, 2010). 2000년대에 들어서 다시 학과제로의 회귀가 확대되던 와중에 이번 글로벌대학30 사업은 다시금 학과 간 벽을 허무는 교육을 향한 기폭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벽을 허무는 것은 교육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이미 평생직업은 사라진 지 오래이며, 앞으로 직업을 여러 번 바꾸며 자신만의 경력(career)을 이루어 갈 미래 세대들에게 다학제적 학습 경험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역량기반 교육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한 차원에서 단편적인 지식을 넘어 복합적인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으로의 변화를 위해 도입된 바 있다. 물론 대학 조직 차원에서도 부족한 자원을 외부와 공유하고, 내부의 자원을 통합하는 것은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벽을 허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안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교육적 경험’을 할 것인지에 있다. 벽이 허물어지고 생겨난 공간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느끼며 배울 것인지, 어떠한 성장과 발전을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벽을 허무는 뼈대를 구축하는 것 만큼이나 그 안에서 학생들이 실제로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사구조의 벽을 허무는 것과 별개로 매년 여러 대학의 학생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융합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가장 큰 동기는 ‘다른 학생과의 만남’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학생들은 학교와 전공, 성별, 학년, 심지어 MBTI가 다른 학생들과 한 팀을 이루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있었다. 학생들은 낯선 환경에서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고, 같은 문제를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되고, 팀 내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연습도 하게 되었다. 지역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실제로 정책을 기획,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지역 주민을 만나 인터뷰해보며 사회적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배웠다. 이러한 배움과 성장의 경험은 단순히 여러 대학의 학생들을 모아 놓는 것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교육적 경험’을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때, 그리고 학생들의 경험을 관찰하고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

교육행정학은 교육을 교육답게 만들기 위해 배우고 연구하는 실천적 학문이다. 벽을 허무는 일이 형식에 국한되지 않고,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가치를 지니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하고 배우게 할 것인지,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어떠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한지, 그 안에서 교수와 학생, 대학 행정가, 지역사회 등은 어떠한 역할과 책무를 가져야 하는지 등에 대한 교육적 시선이 필요하다. 또한 이는 대학 마다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글로벌대학에 대한 기대가 크다. 파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글로벌대학은 해당 대학의 혁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학 사회 전반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혁신의 노력들이 실제 학습자들의 성장과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 안에서 어떠한 교육적 경험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와 관찰이 요구된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대학 혁신의 중심에는 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학 공동체의 성장과 발전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시도가 허상(虛像)이 되지 않고, 학생의 성장이라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육학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참고문헌

- 강명구, 김지현(2010). 한국 대학의 학사구조 변화와 기초교양교육의 정체성 확립의 과제. *아시아교육연구*, 11(2), 327-361.
- 교육부(2023).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벌대학 30」 추진방안.
- 배상훈 외(2023). 세계에 내놓을 한국 최고의 대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글로벌대학30 혁신기획서를 중심으로. 2023 글로벌HR포럼 발표자료.

• 2023년 학회주요소식 •

1. 52대 사무국 소개

한국교육행정학회		홈페이지: http://www.keas1967.com/ E-Mail: keas1967@daum.net
학회	주소	(04176)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막로 331(마스터즈타워빌딩) 9층 902호
사무국장	성명	김제현(한국교원대, keas1967@daum.net)
간사	성명	총무간사: 김어진(한국교원대) - 업무: 학회 및 학술대회 총괄업무 - keas1967@daum.net , 010-9808-8116
		총무부간사: 김선유(한국대학교) - 업무: 회원 및 회비 납부관리, 홈페이지 관리, 사업수주 행정관련 업무 - keas1967@daum.net , 010-3687-0857
		편집간사: 신원규(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연구 투고 및 발간 관련 업무 - keas1967@nate.com , 010-6754-8687
		편집부간사: 신윤미(공주대학교) - 업무: 교육행정학 연구 투고 및 발간 업무 지원, 게재료 납부 확인 - keas1967@nate.com , 010-4097-6507

제 51대 사무국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52대 사무국으로 학회행사 및 각종 사업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2. 학술지발행

「교육행정학연구학술지」 발행일정

교육행정학연구(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는 사회과학분야의 등재학술지입니다. 2004년 이래 등재학술지 자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시 접수체제로 운영(홈페이지접수)하고 있으니, 연구자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투고를 부탁드립니다.

권호	접수 마감일	발간 예정일
42권	1호	2024년 02월 28일
	2호	2024년 04월 30일
	3호	2024년 06월 30일
	4호	2024년 08월 31일
	5호	2024년 10월 31일

문의 : 신원규 편집간사 (010-6754-8687 / keas1967@nate.com)

「교육행정학연구」 논문투고 및 인용 활성화 요청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에서 발행되는 ‘교육행정학연구’는 2004년 KCI 등재학술지로 선정되어 꾸준히 교육행정 전반의 깊이 있는 연구로 한국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정되어 있는 등재학술지 계속 평가와 관련하여 논문의 투고율과 인용지수가 중요한 사안으로 자리잡고 있어 회원분들의 적극적인 논문 투고와 KCI 논문 인용을 부탁드립니다.

※ KCI 인용지수는 재단 우수등재, 등재, 등재후보 학술지 간의 인용된 횟수만을 가지고 산출된 지수로서, 해외 학술지에 인용된 횟수는 포함되지 않음.

※ 논문의 저자가 피인용문헌을 기재할 때,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발행권호를 잘못 기재한 경우, KCI 인용지수 산출시 누락될 수 있음.

3. 제 52대 부회장 선거결과

2023년도 제 52대 부회장 선거결과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변기용 교수님께서 당선되었습니다. 변기용 교수님께서 2024년 제 52대 부회장을 역임하신 후 2025년에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을 맡아 학회를 이끄실 예정입니다.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당선 공고

한국교육행정학회 제 52대 부회장 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성명 : 변 기 용

소속 : 고려대학교

직위 : 교 수

2023년 11월 3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회장
부회장선출관리위원회 위원장



4. 회비납부안내

회원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학회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 회원님들의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연회비와 이사회비를 상시 수납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연회비 및 이사회비 규정을 참고하시어 회비를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목	회비
이사 임원회원 이사회비	100,000원
일반 정회원 연회비 (※ 정년퇴직한 비이사회원은 면제)	50,000원
학생(전일제) 회원 연회비 (※ 전일제 석사과정생에 한정함)	30,000원
기관회원 연회비	100,000원
신규회원 입회비(※ 개인 및 기관 회원 공통)	10,000원

※ 2021년부터 정회원비 3~5회분 선납제는 운영하지 않습니다.

5. 정책연구수주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는 2023년 한 해 동안 총 7개의 정책연구 과제를 수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회 회원님의 정책연구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착수~완수)	총 연구비 (간접비)	발주기관
안동시 평생학습원용역	정성수 (대구교대)	2023. 02.28~ 2023.11.02.	37,740,000원 (2,264,400원)	안동시 평생학습원
작은학교지원을위한중장기 방안연구	박수정 (충남대)	2023.04.13.~ 2023.11.09.	29,755,900원 (1,785,354원)	대전광역시 교육청
서대문형 미래교육발전방안 연구용역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04.13.~ 2023.10.08	19,790,000원 (1,187,400원)	서울시 서대문구청
미래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양성과 임용체제 연계 방안 연구	차성현 (전남대)	2023. 07. 18 ~ 2023. 12 .31	40,000,000원 (2,400,000원)	한국 교육개발원
2023 학교교육지원센터 정책연구용역	박대권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08. 07 ~ 2023. 10.31	27,242,000원 (1,542,000원)	세종시교육청
복권기금 꿈 사다리 장학사업 발전방향 연구용역	오세희 (인제대학교)	2023. 08. 01 ~ 2024. 01.31	36,000,000원 (1,695,000원)	한국장학재단
포항형 교육발전특구 지정연구 용역	김병주 (영남대)	2023.11.3. ~ 2024.4.30.	86,273,000원 (4,399,923원)	포항시청

6. 학회행사소식

1) 2023년 연차학술대회 개최

- 가. 일시 : 2023년 12월 2일 (토) 오전 09 시 ~ 18시
- 나. 장소 : 충남대학교 융합교육혁신센터
- 다. 주제 : 지역, 국가와 고등교육 경쟁력: 전망과 과제
- 라. 주최 : 한국교육행정학회 · 한국교육개발원 공동
- 마. 주관 : 한국연구재단 · 한국지방교육연구소 · 충남대학교 BK21사업단
- 바. 후원 : 한국교육개발원 · 충남대학교 BK21사업단
- 사. 프로그램 : 1부 학문후속세대 패널 8개 신진학자 패널4개 자유주제패널 6개
2부 학문후속세대 패널 4개 단체 및 기관 발표 패널 6개
자유주제 발표 패널 6개



2) 2023년 연차학술대회 소석논문상·주삼환리더십상 시상

2023년 소석논문상 수상자는 고전(제주대) 교수님께서 수상, 주삼환리더십상 수상자는 송기창(숙명여대) 교수님께서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3) 학회학술지 교육행정학연구 5회 발간

권/호	편수	발간일
41권 1호	21	2023년 4월 30일
41권 2호	11	2023년 6월 30일
41권 3호	14	2023년 8월 31일
41권 4호	19	2023년 10월 31일
41권 5호	14	2023년 12월 31일
2023년 소계	79	
누적총계(1983-2023)	2,041	

4) 뉴스레터 3회 발간

제호	발행일	주제/저자
149호	2023.05.31	■ 주론 : 생성AI[챗GPT]시대의 과제경영 -박남기(광주교대) -Nathanong(피츠버그대학교컴퓨터학박사과정 겸 강사)
150호	2023.10.31	■ 주론 : 지역사회에대한 대학의 경제적가치와파급효과 -고장완(성균관대) ■ 시론 : 1. 지역주도 고등교육 체계로의 전환과 우리의 역할 -주희정(한국직업능력연구원,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 2. 개별대학 주도의 성과 관리 체제 구축, 무엇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는가? -박수미(건국대학교,교육성과관리센터장)
151호	2023.12.31	■ 주론 : 2024년 제 52대 행정학회 운영방향 -김도기(한국교원대) ■ 시론 : 1. 차기 한국교육행정학회에 바란다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2. 차기 학회에 바란다 -우한솔(삼설글로벌리서치) 3. 교육적 가치를 담은 ‘벽 허물기’ 를 위한 제언 -한송이(세명대학교)

5) 소석논문상 위원회 공로패 전달

10월 28일 고(故) 강길수 박사님(전 서울대 교수)의 장녀이신 강용진 박사님 외 가족분들과 이종재 이사장님, 소석논문상 위원회 위원분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교육행정학회의 1세대 학자인 고(故) 강길수 박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만든 '소석논문상'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보고 이에 가족의 대표이신 강용진 박사님께 공로패를 전달하였습니다. 한국교육행정학 분야에 있어 지대한 공헌을 해주신 고(故) 강길수 박사님께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한편, 해외에 거주중이시나 본 학회와 소석논문위원회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신 강용진 박사님 외 가족분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소석논문상에 대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8. 회원 동정 및 신간 안내

1) 회원신간안내

〈주삼환 학문여정, 교육행정 공부〉 주삼환 저 / 교육과학사 / 2024. 01. 20



이 책은 한 교육행정 학도가 어떻게 교육행정을 접하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어 어떻게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를 공부해오고 또 가르쳐왔는지 밝히고 기록으로 남겨서 교육행정 후학들에게 앞으로 교육행정을 연구하고 실제 행정을 실행하는 데에 참고하도록 하기 위하여 쓴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밝힌 석·박사 과정의 공부와 연구 과정은 학문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참고할 점이 있을 것이고 장학론, 교장론, 리더십 등 교육행정의 여러 분야의 공부 내용은 교육행정 강의 교재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영유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경영 탐색〉 신재홍 저 / 동문사 / 2023.09.05



본 저서는 영유아교육행정기관을 운영하는 운영자와 교사 및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전공학생들이 보다 효율적인 영유아교육행정을 위한 기본적인 이론과 실재를 부합하도록 구성하여 서술하였다. 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 영유아교육행정의 기초, 제2장 영유아교사를 위한 교육행정 및 경영 이론적 기초, 제3장 바람직한 조직문화를 위한 인간관계, 제4장 영유아 교육기관의 장학행정, 제5장 영유아 교육기관 원장(교사)의 리더십, 제6장 영유아교육기관 설립 및 원아모집 제7장 영유아교육기관의 학급경영, 제8장 행사관리 및 지역사회 연계, 제9장 영유아 관리행정, 제10장 영유아보육정책과 제도 등을 다루었다.

본 저서는 보다 영유아교육행정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자 하는 현직기관 운영자들과 미래의 영유아교육행정기관의 운영자로서 대학에서 유아교육 및 보육관련 전공자들과, 그리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 관련 전문가들을 위해 집필되었으며,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또한 본 저서는 영유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쉽게 풀어쓰면서 〈학습목표〉, 〈Keyword〉, 〈연습 및 탐구문제〉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 책을 통해 영유아 교육행정 및 교육경영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태도를 형성하는 데 작은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해 본다

〈한국 교육사상의 맥〉 신재홍 저 / 교육과학사 / 2023.10.25



본 저서는 우리나라 교육의 사상적 관류를 통하여 그 맥과 혈을 탐구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를 위해 본 저서는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교육사상사의 개관, 제2장 단군신화의 교육사상, 제3장 선도(仙道) 교육사상, 제4장 화랑도 교육사상, 제5장 불교 교육사상, 제6장 유교의 교육사상, 제7장 실학의 교육사상, 제8장 천주교의 교육사상, 제9장 동학의 교육사상, 제10장 기독교의 교육사상등이다.

이 책의 내용 이해력을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내용을 쉽게 풀어 썼으며 시각적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그림이나 사진들을 삽입해 넣었다. 사진과 그림을 삽입함으로써 ‘한국 교육사상’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을 것이며 교재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 또한 본서는 한국 교육사상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전달하기 위해 쉽게 풀어 쓰면서 〈학습목표〉, 〈Keyword〉, 〈생각해 봅시다〉 등을 포함시킴으로써 교육현장의 활용도를 높이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저서는 한국 교육사상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고, 앞으로 한국 교육사상 연구에 관심을 두고 있는 후학들에게 길잡이의 구실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9. 2023년 회비납부 명단(2023년 12월 31일 기준)

1) 2020년 5개년 회비 납부자 명단

구성우, 김병찬, 나민주, 엄문영, 허병기

2) 2023년 신입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84명), (a : 전일제회원, b : 일반정회원)

강동원	강미리	계상충	고은애	고주희	김경원	감규석	김다운	김보영	김선유a	김성아	김성현
김소현	김수용	김승호a	김승호b	김어진a	김영준	김영지	김정아	김정은	김지선a	김지현	김진희
김향란a	김향란b	김혜진	김효은a	김효은b	문혜빈	박가실	박소영	박연복	박연은	박주혜	백지원
서경숙	서시연	서재복	서지희	석은숙	신창기a	신형석	신 훈	안해연	엄지윤a	여홍은a	염경준a
오승천	오재준	유선영	유지성	유진설	유헌린	유희준	윤민자a	이고운	이다현	이선복	이세영a
이순희	이승현a	이예서	이주원	이지연	이해직	임수아	장서진	장수정	장진원	조민영	조영경a
조 인	조학연	조현명	최혜인a	편재호	표정현	하현지	한희경	황수민	황현철	나란	차차랄

LI YAN

3) 2023년 기존회원 회비 납부자 명단(178명), (a : 전일제회원, b : 일반정회원)

김명수	강소윤	강원근	강은숙	강재혁	강정은	경미선	고장완	고 전	공희정	구지연	국준봉
권수진	권은비	권희청	김건아	김리나	김무영	김민희	김범주	김병찬	김선영	김선이	김수진
김영빈	김용우	김용일	김이경	김인재	김정희	김제현	김종민	김지선b	김지현	감하얀	김한나
김희규	나민주	남인혜	노지영	류민영	명주영	문영빛	문정미	문지영	문찬주	문희원	민수빈
박다슬	박동찬	박선나	박선형	박세준	박소영	박수미	박수아	박수정	박승종	박연복	
박영숙(전KEDI)	박유민	박인심	박재은	박종필	박지희	박태양	박해경	박현주	박혜연	박효원	
배소현	배정훈	배지혜	백정하	변기용	변수연	서재영	서정화	서지영	서화정	선미라	손다운
손판이	송경오	송이영	송효준	신재영	신재흠	신하균	신하영	신현석	심택형	안선희	안현용
엄문영	엄준용	연 우	염민호	오범호	오유진	우선영	유성동	유승민	유종훈	윤세영	윤소희
윤익상	윤 정	윤혜원	이경호	이고은	이기용	이길재	이동엽	이래효	이문수	이보미	이상규
이상철	이서연	이석열	이성희	이수민	이수지	이슬아	이승현b	이승호	이승희	이영신	이원재
이유진	이은혜	이인서	인이수	이재덕	이진권	이평구	이필남	이혜니	이해직	이혜나	이호준
이희숙	임수진	임종현	임희진	장덕호	장우천	전제상	전지혜	정광호	정동욱	정설미	정세환
정수현	정유리	정은경	정재균	조민지	조영하	주희정	차지철	채재은	최성규	최순환	최지원
하동엽	한송이	한지예	함승환	함진숙	허은정	홍창남	황수정	황재운	황정훈	황준성	

4) 법인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2명)

윤정일, 고 전

5) 이사회비 납부자 명단(40명)

김용	고장완	김갑성	김민희	김이경	김희규	나민주	박남기	박대권	박선형	반상진	박수정
박종필	배상훈	백정하	변기용	서지영	송경오	신재흠	신철균	신현석	안선희	엄문영	엄준용
오범호	이광현	이길재	이동엽	이석열	이성희	이수정(단국대)	이인희	이희숙	임수진	장덕호	
정수현	주현준	채재은	최순환	함승환							

6) 2023년도 기관회원 납부(7)

나이스북, 사학진흥기금, 전라북도교육연구원, 국회도서관, 강원대학교 교육연구소

※ 연회비 또는 이사회비를 납부하였으나 납부 명단에서 누락된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 담당: 총무부간사 박명현 (010-8869-2996, keas1967@daum.net)

10. 제 51대 사단법인 한국교육행정학회 임원

■ 회장단

- 회 장 : 김병주(영남대)
- 부 회 장 : 김도기(한국교원대)
- 감 사 : 염민호(전남대), 김갑성(한국교원대)

■ 이사회

• 당연직 이사(33명)

신극범	신철순	김명한	남정걸	이형행	윤정일	신중식	김신복	주삼환	이종재
서정화	노종희	강무섭	강인수	박종렬	정영수	김명수	신재철	송광용	임연기
허병기	이윤식	박세훈	김성열	신현석	주철안	김혜숙	반상진	박남기	고전
박선형	김병주	김도기							

• 선임직 이사 73인

고장완(성균관대)	김용(한국교원대)	김갑성(한국교원대)	김규태(계명대)	김민조(청주교대)
김민희(대구대)	김병찬(경희대)	김영식(경남대)	김왕준(경인교대)	김이경(중앙대)
김용련(한국외대)	김정희(대교협)	김희규(신라대)	나민주(충북대)	남수경(강원대)
박대권(명지대)	박상완(부산교대)	박소영(숙명여대)	박수정(충남대)	박영숙(KEDI석좌)
박종필(전주교대)	박주형(경인교대)	배상훈(성균관대)	백정하(대교협)	변기용(고려대)
서재영(한남대)	서지영(용인대)	서화정(대구대)	송경오(조선대)	신재흡(한성대)
신정철(서울대)	신철균(강원대)	안선희(중부대)	양성관(건국대)	엄문영(서울대)
엄준용(중부대)	오범호(서울교대)	유길한(전주교대)	윤홍주(춘천교대)	이광현(부산교대)
이길재(충북대)	이덕난(국회입법조사처)	이동엽(KEDI)	이석열(남서울대)	이성희(KEDI)
이수정(단국대)	이수정(세종대)	이승호(KEDI)	이쌍철(KEDI)	이인희(제주대)
이재덕(한국교원대)	이정기(백석대)	이정미(충북대)	이필남(홍익대)	이희숙(강남대)
임수진(광주교대)	장덕호(상명대)	전제상(공주교대)	정동욱(서울대)	정바울(서울교대)
정성수(대구교대)	정수현(서울교대)	정제영(이화여대)	주현준(대구교대)	차성현(전남대)
최순환(대구한의대)	채제은(가천대)	천세영(충남대 명예)	최정윤(KEDI)	하봉운(경기대)
함승환(한양대)	홍창남(부산대)	황준성(KEDI)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 헌장



한국교육행정학회 윤리헌장은 회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본 학회는 물론 회원 개인의 윤리성을 고양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대용을 준수해야 한다.

- ① 회원은 학회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회원은 학회 활동을 통하여 교육행정학과 한국교육행정의 발전에 기여하고 공익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법률 및 학회 윤리규정, 학계에서 권장하는 기본적인 연구 학술 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 ④ 회원은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 ⑤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회원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 ⑥ 회원은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회원은 연구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 ⑧ 회원은 학술활동 관련 연구대상자 및 연구보조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2007. 4. 27



한국교육행정학회

